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콧노랑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⑧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30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 다큐멘터리 <한복 1~2부 스페셜>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0 좋은 아침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45 빛날 스페셜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네트워크 특선 여기는 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현장 55 바른길 고운말(재)	00 장사의 신 객주2015(재)	00 TV 속의 TV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충재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12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①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키즈 사이언스 5(재)	00 건강클리닉
②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③	00 직언직설	00 세계 미식대전 제1편(재) 55 든든생활제조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독 독 키즈쿨	00 영재발굴단(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무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마법천자문 40 영크르 특선다큐멘터리 <허풍으로 만나는 중국 대륙의 음식은 다재롭다>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드
④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 미식대전 제2편(재)	00 TV우치원 30 아웅정PD의 요리인류 키킹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푸라기 탐구생활
			00 1대 100		
⑤	40 박정호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토틀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⑧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 정보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0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장사의 신 -객주 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송터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비행 더 콘서트	10 특선 영화 <집으로 가는 길>	10 라디오스타	15 한 밤의 TV연예
⑫	50 먹거리 X파일	50 동행(재)		30 MBC 뉴스24 5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고수다	15:15 마야의 모험	18:55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4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5:40 다문화 사랑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10 다큐 오늘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0:40 다큐 오늘
07:3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댕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카 폴리	12:10 사선에서	17:30 꼬마버스 타요(재)	<중국 어머니의 강 장강>
08:00 당동댕 유치원 1	13:05 지식채널e	17:45 로보카 폴리	21:30 한국기행 <장터기행>
08:10 한글이 야호2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1	21:50 EBS 다큐 프라임
08:20 당동댕 유치원 2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8:05 출중 슈퍼왕스	<행복한 건축>
08:30 두다다쿵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2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2	22:45 극한직업
08:40 당동댕 유치원 3	14:00 미앤마이 로봇	18:25 내 친구 아서	23:35 장수의 비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코코몽2	18:4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3	24:10 한국영화특선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콜랜드 절대비밀	<왕의 남자>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알짜개념>	11:00 "	<수학A>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2:10 올림포스 <국어II-알짜개념>
01:40 "	<화환과 통계>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2:30 "	<기하와 벡터>	14:0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03:20 "	<수학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4:50 올림포스 <화환과 통계>	
	<기하와 벡터>	15:40 "
05:00 뉴탐스런 <화환I>	16:30 "	<수학II>
06:00 "	<지구과학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06:4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18:10 EBS N제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19:20 "	<동아시아사>
09:10 "	<이은주의 수학II>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0: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20:50 2016 인터넷 수능 <영어>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

EBS플러스2

07:00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중간학업성취도 대비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시험대비강좌	<사회 3-2>
08:30 한경TEST 시험대비강좌	15:50 "
09:00 출거온 수학 EBS MATH	<사회 4-2>
09:10 TV중학 <국어II(1)>	16:20 "
09:50 "	<수학 1(하)>
10:30 "	<도덕 1>
11:10 "	<국어3(4)>
11:50 "	<수학 2(하)>
12:30 EBS 특강	18:00 TV중학 <국어5(6)>
13:10 등업신공	<사회 1>
13:50 "	<사회 2>
14:30 "	<역사 1>
15:10 어휘왕!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22:40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0일(음 8월 18일 己酉)	
子	48년생 소문은 사실과 다르니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 60년생 급격한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72년생 정도를 걸 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84년생 의외로 상당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3, 10	午	42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마땅하다. 54년생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66년생 고목 회춘의 기쁨이 크다. 78년생 훗날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61, 12
丑	49년생 다시 살펴보면 빈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1년생 지속적인 열성으로 임하면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73년생 나아진 만큼 더 많은 번거로움도 따른다. 85년생 새옹지마, 전화위복의 격이다. 행운의 숫자 : 84, 49	未	43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히 밀어붙여야 한다. 55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마지않아서 유용한 열혈을 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거머붙이다 보면 결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79년생 앞날할 속에서 화폭함이 쏘든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4, 73
寅	38년생 불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50년생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62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 74년생 패가가 있다. 86년생 예전과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행운의 숫자 : 09, 68	申	44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마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56년생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8년생 적절 한 사전 예방이 최상이니라. 80년생 행로를 좌우할 만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55, 17
卯	39년생 미리 감지하는 게 편하다. 51년생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63년생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75년생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할 것이다. 87년생 얻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 36	酉	45년생 시작적으로 평가하려 들지 말라. 57년생 주관적인 판단은 소모적일 뿐이다. 69년생 주변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법이다. 81년생 이용당할 수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5, 26
辰	40년생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52년생 단처(부족하거나 모자란 점)가 보이니 확실하게 개선하라. 64년생 초목은 폭풍우를 맞으며 강해지는 법이다. 76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30, 45	戌	46년생 불합리함을 확실히 척결해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 58년생 치밀한 관리가 없으면 허술해지기 쉽다. 70년생 드러나지 않은 이면이 모순이 보인다. 82년생 외형까지 신경 쓴다면 부가적인 효과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7, 56
巳	41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은 알맞 것이다. 53년생 시기를 확실히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5년생 말은바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 77년생 궁금에 갇힌 것을 파악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7, 78	亥	47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59년생 정리되더라도 안정제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71년생 의례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부조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느니라. 83년생 객관적이어야 설득력을 갖춘다. 행운의 숫자 : 13, 8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보고, 느끼고, 배우고 ...

영화 보는 시선 달라졌죠”

‘사도’ 서 비극의 후궁 영빈 역 전혜진

혜경궁 홍씨가 다급히 달려와 사도세자가 칼을 빼들고 경희궁으로 갔음을 알린다. 이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는 낫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영화 ‘사도’에서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비극의 후궁 영빈 역을 맡아 중년부터 노년까지 나이를 초월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는 전혜진(39·사진)이다.

전혜진은 이준의 감독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왜 나한테 이걸 주셨지?” 싶었다고 한다.

“대본이 워낙 세터라고요. ‘어떻게 나를 아시지?’, ‘왜 나한테 이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극단 차이무 선배인) 송강호 선배가 영조 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러면 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막상 매치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니 ‘영광이라고 전해 드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웃음)”

그렇게 들어간 ‘사도’는 배우 전혜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 ‘사도’는 연기력 대결이라도 하듯이 주연부터 조연까지 정중한 배우들이 포진해 무대를 누비는 영화다. 그 가운데서도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죄를 고변하고, 그 참혹한 결과에 정신을 놓아버리는 영빈의 모습은 두드러진다. 전혜진은 무엇보다 촬영 현장이 마음을 열고 연기할 환경이 됐다고 주변으로 공을 돌렸다. 선배 송강호(영조)와 김해숙(인원왕후)의 연기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게 했고 친한 선배인 박명신(정성왕후)은 물론이고 후배 문근영(혜경궁 홍씨)과 유아인(사도세자)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웠다. 게다가 이준의 감독은 전혜진을 특히 ‘격하게’ 아꼈다고 한다. 현장에서 이 감독과 가장 오랜 시간 붙어 있으면서 영화와 연기, 인생에 관해 대화하고 고민을 상담한 것도 그랬다.

“감독님과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고민을 많이 얘기하고 상담했어요. 저더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이 감독님 때문에 영화를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최대한 즐기면서 해요.”

영빈뿐 아니라 배우 전혜진도 엄마다. 그는 남편인 배우 이선균과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그는 ‘사도’가 여러 세대가 각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화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도 완성된 영화를 볼 때 자식 입장과 부모 입장 양쪽에서 바라보게 됐다고 했다.

“영빈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을 거예요. 왕이 아들의 행동을 어떻게든 알게 될테니 선처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었고, 제 새끼를 먼저 생각하는 독한 며느리의 부추김도 있었고. 그리고 아들 이상으로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저희 친정엄마를 보면 이해가 가죠. 이렇게 제가 나와서 일할 때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엄마는 나한테는 왜 안 그랬을까’ 싶을 때도 있었어요.(웃음)”

남편 이선균도 시사회에서 ‘사도’를 함께 봤다고 한다. 평가는 어땠을까?

“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영화가 좋다고 했어요.(웃음) 저보다 더 울더라고요. 본인도 아빠니까요. 그리고 작품도 작품이지만, 제가 촬영하면서 어떻게 했고,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고, 그런 걸 다 아니까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연기에 대한 조언을 서로 해주는지 묻자 “맛모를 떠나 그랬다”며 웃었다.

전혜진은 이선균과 함께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 2013년 연극 ‘러브, 러브, 러브’에서 부부로 출연했다. 그러나 그는 남편과 앞으로 한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자체할 생각이라고 한다.

“연극을 해보니 주위에서 너무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제 되도록 안 하려고요. 육아 예능이요? 어휴, 절대 안 돼요. 우리 집 얘기는 너무 ‘세사’ 드러나면 큰일 나요. 배우 생활 못해요.(웃음)”



10월 21일 ‘백 투 더 퓨처’·11월 5일 ‘이터널 선샤인’

“백 투 더 무비” 을 가을 향수에 물들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백 투 더 퓨처’와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 국내에서 재개봉한다.

27일 영화사 안다미로에 따르면 ‘백 투 더 퓨처’(1985)와 ‘백 투 더 퓨처2’(1989)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1일 국내에서 동시 개봉한다. 타임머신을 소재로 공상과학(SF) 코미디를 표방한 이 영화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3부작 시리즈로 나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안다미로는 “올해는 ‘백 투 더 퓨처’의 미국 개봉 3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한다”고 밝혔다.

내달 21일 개봉하는 이유는 아주 특별하다. ‘백 투 더 퓨처2’에서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마이클 J. 폭스)가 미래의 자녀를 구하러 30년 후로 떠나는데, 타임머신에 설정한 미래의 그날이 바로 2015년 10월 21일이기 때문이다.

재개봉 포스터가 언어 표기법에 맞는 ‘백 투 더 퓨처’가 아닌 ‘백 투 더 퓨처’인 것도 이유가 있다.

미국보다 2년 늦은 1987년 국내 개봉 당시 극장에 걸린 제목이 ‘백 투 더 퓨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본연 그대로의 이름으로 돌아온 이번 영화는 많은 이들의 반가움을 자아내고,

향수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2005년 11월 10일 개봉했던 로맨스 멜로 ‘이터널 선샤인’도 약 10년 만인 오는 11월 5일 국내 재개봉을 확정했다.

헤어진 연인의 기억을 지워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기억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드 인디고’, ‘수면의 과학’ 등을 연출한 미셸 공드리 감독의 대표작이다.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커스틴 던스트, 마크 러팔로, 일라이저 우드 등 배우들의 명연기도 오래도록 회자된 영화다. 제77회 아카데미상 각본상, 영국 가이언 선정 역사상 최고의 로맨스, 올해 BBC가 주관한 미국영화 100선 가운데 2000년대 이후 멜로 장르 1위를 차지했다.

‘이터널 선샤인’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작품이다.

인기 밴드 핵오는 이 영화에서 감흥을 받은 ‘공드리’를 발표했고, 다음 달 열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의 연주회 제목도 ‘이터널 선샤인’이다. 가수 조규현, 정준영 밴드 도이 영화에 헌사를 바쳤다.

‘신화’ 김동완, 7년만에 솔로 활동

미니앨범 ‘D’ ‘W’ 잇달아 발매

그림 신화의 김동완(사진)이 7년 만에 솔로 활동에 나선다. 소속사 씨아이이엔티는 올 상반기 신화로 활동한 김동완이 오는 10월 미니앨범 ‘D’와 11월 미니앨범 ‘W’를 잇달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솔로 앨범은 지난 2008년 2집 ‘더 시크릿’(The Secret) 이후 7년 만이다.

두 장의 미니앨범에는 신화 엔디와 지오디 테니안의 피처링을 비롯해 프로젝트 그룹 ‘스탠딩 에그’와 앨범 ‘쇼미더머니 3’에 출연한 래퍼 씨뽕 등 실력과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또 조용환, 이선희, 아이유 등과 작업한 작사가 김이나와 ‘썸’

의 작사가 민연재, 작곡가 송양하·김도현·이유진·스웨덴 출신 호칸 퍼슨과 루이스 린덴저 등이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는 “다양한 뮤지션과의 작업을 통해 김동완의 질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